한국영화 100년 담은 '단성사 역사관' 개관

▲ 1934년 당시 단성사 신축 건물과 새로 조성된 '단성사 영화 역사관' 내부. 역사관은 학생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다.

지난 27일은 한국 최초의 영화 '의리적 구토' 가 종로 옛 단성사에서 상영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다.

1907년 설립된 단성사는 2008년 부도 후 4차례의 경매 절차 끝에 2015년 3월, 한 개발사에 인수됐다. 이 개발사는 이후 1년여 리모델링을 거쳐 2016년 9월 완공됐으며, 이름을 '단성골드빌딩' 으로 바꾸고 주얼리센터와 보석역사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건물을 새로 꾸미면서 한국 영화의 탄생지인 단성사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상영관 1곳을 그대로 남기고, 극장이 있던 지하 2층 430평 전체를 영화역사관으로 단장했다.

단성사 영화역사관은 1930년대부터 개봉 당시 영화 포스터, 전단, 시나리오, 촬영장 스틸컷 등 원본 자료와 영화 관련 장비 등 8만 2천400여 점 중 5천500여 점을 선별해 한국 영화 100년의 기록과 세계 영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물, 단성사 최초 목조건물이 화재로 소실된 후 1934년 신축한 극장 건물의 벽돌과 원본 사진등을 전시했다.

이 개발사 관계자는 "한국 영화의 상징인 종로 단성사가 경영난으로 부도가 나고 수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며 "단성사 영화역사관이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과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향후 단성사 영화역사관은 이 장소를 학생들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학생 단체 관람에 한해 주 1회 무료로 개방한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열린 개관식에는 임권택 감독, 원로배우 신영균, 한국영화100주년기념사업회 위원장 이장호 감독, 배우 김혜자 등 주요 영화계 인사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개 부문 후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19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s)에서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지난 24일 시상식 주최측이 발표한 부문별 후보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 (FAVORITE DUO OR GROUP-POP/ROCK)과 '투어 오브 더 이어' (TOUR OF THE YEAR),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FAVORITE SOCIAL ARTIST)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2017년 아시아 뮤지션으로는 유일하게 이 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쳤으며, 지난해에는 ㅈ후보자로 지명돼 한국 그룹 최초로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수상에 도전하는 올해는 인기를 가늠하는 소셜미디어 부문이 아닌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 과 '투어 오브 더 이어' 등 주요 부문에 처음 지명됐다.

올해 4월 앨범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 (MAP OF THE SOUL : PERSONA)를 내고 세 번째 빌보드 정상에 오른 이들은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 부문에서 조나스 브라더스, 패닉!앳더디스코와 경합한다. 또 '투어 오브 더 이어' 에서는 아리아나 그란데, 엘튼 존, 핑크, 에드 시런과 트로피를 두고 경쟁한다.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는 한국의 엑소를 비롯해 빌리 아일리시, 아리아나 그란데, 숀 멘데스와 경쟁한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4일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 열린다.

제니퍼 로런스, 품절녀 됐다

배우 제니퍼 로런스(29)가 지난 19일 로드아일랜드의 뉴포트에서 아트갤러리 소유주 쿡 마로니(34)와 결혼했다.

결혼식에는 가수 아델과 영화배우 캐머런 디아스, 시에나 밀러, 에마 스톤, 니콜 리치와 그 남편 조엘 매든 등 많은 스타와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로런스는 2012년 '실버라이닝 플레이북' 에서 젊은 미망인 티파니 역을 열연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같은 해 판타지 영화 '헝거 게임' 에 출연해 큰 인기를 끌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여배우 중 중 하나가 됐다.

로런스는 영국 배우 니컬러스 홀트,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리더 크리스 마틴,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와도 사귀기도 했다.

숫자퍼즐 정답

4	2	7	8	6	9	5	3	1
5	6	8	1	3	4	9	2	7
9	3	1	2	7	5	8	6	4
1	7	4	9	8	3	2	5	6
2	8	3	4	5	6	1	7	9
6	9	5	7	1	2	3	4	8
8	5	2	6	9	7	4	1	3
3	1	6	5	4	8	7	9	2
7	4	9	3	2	1	6	8	5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춘향전의 진정한 교훈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전 어떤 젊은 유학생의 사주를 상담해 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당시 그 청년은 국비 유학생으로 이곳 미국에 와서 유학을 했던 청년이었는데 타고난 팔자 자체가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전문직이나 고위 공무원을 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었다. 타고난 그릇이 있으니 학창시절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명문대에 진학을 했으며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이곳 미국에 와서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이어나가던 중에 어떤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던 것이다. 이전에 연애 경험도 없었고 샌님처럼 공부만 파고들던 유학생에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어떤 여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이 학창시절 공부만 잘했지 연애에는 전혀 소질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그 여학생과의 연애가 순탄치 못했고 나중에 그 여학생이 주변의 다른 남학생을 만나는 것을 보면서 깊은 상심을 했던 것이다. 그 당시 필자가 해준 이야기가 바로 춘향전의 이야기이다. 보통 춘향전의 교훈은 列女(열녀)는 不更二夫(불경이부)로서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여인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학(易學)적으로 볼 때 남자팔자에서 재성(財星)은 곧 여자나 배우자를 뜻하는데 문제는 이 재성(財星)의 역학적인 관계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도록 만드는 인성(印星)하고는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마음잡고 공부하기는 힘든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권해주기를 지금처럼 중요한 시기에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공부에 큰 방해를 받게 되고 타고난 그릇이 그래도 훗날 고위 공직자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주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여자 친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공부에만 전념하라고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춘향전의 이몽룡이 역시 춘향이를 떠나 한양에 가서 마음잡고 공부해서 결국 장원급제로서 금의환향을 했던 것이다. 그 당시 그 유학생은 필자의 충고대로 학업에만 전념을 했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명문대 교수로 임용되었다. 춘향전의 진정한 교훈은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정신이 팔리면 학업에 크게 방해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 역학 학술원